

청년고용 유효기간 연장, 상시법으로

문화관광 생태계 지속도, 선제 대응에 몰두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 넘겨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률안 심사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시적·단기적 접근에 그쳤던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앞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한 바 있지만 한시법의 성격상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 해산 지속적으로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시법 전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취업난과 고용질벽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윤 의원의 진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현행법이 2023년까지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연속적이고 일관된 청년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 심의·의결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 등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19 피해로 도민은 물론,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오프라인 문화활동 감소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몰두했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안정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내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재난지원금, 창작준비금 지원,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98억원을 투입했다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19 피해로 도민은 물론,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오프라인 문화활동 감소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몰두했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안정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내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재난지원금, 창작준비금 지원,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98억원을 투입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 달성 위해 청년들과 함께 노력"

정운천 의원, 주호영 의원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한다' 토론회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계층 갈등은 실질적 불공정에서 오는 분노의 결과물"이라며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가 청년 세대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지난주 지역 갈등에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계층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확장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빈부격차, 교육불평등, 근로형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빈부격차와 청년의 역할'으로 발제 첫 순서를 맡은 김경민 씨는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가 개인의 사회안전망과 연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배운주 씨는 '계층 갈등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전통적 교육

불평등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디지털 리더십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진영 학생은 '과보호된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을 부르짖는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이란 주제로 기록세력인 민주노동과 MZ 세대의 갈등과 상생에 대해 다뤘다

발제가 끝난 후, 이윤규 학생(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과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장 청년준비위원회 황민철 이사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도 계층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효상 기자

신영대 의원, 군산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 공모 세워

군산시가 문체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신영대 의원이 공이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실제로 신 의원은 군산시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의 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섰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시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군산이 문화공유도시로 도약하는 힘찬 첫 걸음을 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문화환경을 기화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군산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제안해 지난 1일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체 49곳이 응모했고, 군산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말 재심의를 통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유효상 기자



"새만금 행정협의회 내실있는 운영을"

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사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일까지 마무리하고, 3일부서는 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2일 예산안 심사는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이뤄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전북 발전을 위해 애쓰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현업부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해에도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한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

은 "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함에도, 현재 4년 주기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보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새만금광역 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3개 시·군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전북도 해외사무소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 사후정산과 사업성과 환류과정을 철저히 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신규사업인 아시아지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효상 기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김제수산업협동조합

해가람은 海 바다 '해'와 강이라는 순우리말 '가람'의 결합어로 전북에서 난 건강한 수산물을 뜻합니다.

부안수협 군산시수협 고창군수협 바다의향기 공소향사람들 금영수산물 진서정갈식품 양서영어조합법인 청정바다정갈 (유)바다향 화우당 (주)아리올수산 (유)엘게이씨푸드 (주)진성식품 (유)기룡냉업 철보수산에스프리트 수경수산 바른수산 하전바지락영어조합법인 하전수산영어조합법인 지성양만 석현수산 해맑은수산물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해가람 쇼핑몰이 12월에 오픈합니다**